

안국선의 ‘정치’ 인식 변화 과정과 친일의 논리

Shifts in Ahn Kook-sun's Perception of 'Politics' and the Logic of Pro-Japanese Collaboration

노 상 균*

Sang Gune Noh

국문요약

본 논문은 유학 시절부터 한일 병합전까지 안국선의 사상이 변화하는 과정을 그의 ‘정치’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살펴본 것이다. 사상 형성 초기 때부터 그의 주된 관심사는 국가와 정치에 관한 것이었다. 그는 정치가가 되고자하는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시대적 상황과 개인적 고난 속에서 그의 구상은 관철되기 어려운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여 그는 유학 시절의 구상을 일정 부분 수정하여 ‘정치’의 영역을 확장하고 인민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지식인으로서 계몽운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논리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본질적인 사상 변화를 수반한 행동은 아니었다. 그는 여전히 정치를 우선적인 과제라고 보았고, 계몽 활동은 어디까지나 차선택으로 생각하였다. 인민을 계몽하고 실업을 진작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어서도 국가 중심의 사고방식은 부분적이거나 여전히 잠재해 있었다. 그의 계몽 활동은 불안정한 사상적 기반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렇기에 안국선에게 출사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는 주저 없이 관직에 진출하는 것을 선택하였다. 그러한 행동의 이면에는 부분적이지만 분명한 사상 변화가 내재되어 있었다. 이전과는 다르게 그는

<http://doi.org/10.56475/ygsr.2026.31.1.31>

논문투고일 : 2026.04.29. 논문심사일 : 2026.05.20. 게재확정일 : 2026.06.05.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선임연구원 (E-mail: dlflcjs@naver.com)

Senior Researcher,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입헌정치와 여론정치를 강조하였고 그럼으로써 대한제국 정부의 자율성을 최소한이나마 확보하고자 하였다. 또 그를 통해 관직 진출에 대한 나름의 정당성도 마련하고자 하였다. 환경의 변화에 따라 행동을 바꾸어나가는 과정에서도 적극적인 활동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안국선이 그 나름의 명분과 합리성을 계속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가 마련한 명분과 합리성이란 한계가 명확한 것이었다. 무엇보다도 그는 일본의 침략행위를 부정적으로 보면서도 그것을 근본적으로 거부, 비판하지 않았다. 실질적인 정치권력을 필요로 하는 그의 개혁구상에서는 현실적으로 대한제국 정부를 장악하고 있는 통감부를 부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한 한계 속에서 결국 그가 선택한 것은 식민권력의 하급관료, 곧 친일의 길이었다.

주제어: 안국선, 한말 일본유학생, 정치, 정치가, 정당정치론

— 목 차 —

I. 머리말	역할 강조
II. 유학 시기(1895~1899): 국가학적 ‘정치’ 인식과 정치가의 역할 강조	IV. 계몽운동 후기(1908~1910): 입헌정치·여론정치의 주장과 정당정치론
III. 계몽운동 초기(1906~1907): ‘정치’ 영역의 확장과 인민의	V. 맺음말

I. 머리말

19세기 말 20세기 초 한국근대사상사의 전개에 있어서 한말 일본 유학생들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존재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근대교육기관을 통해 체계적으로 서양의 근대학문을 학습한 한국 최초의 근대지식인 집단이었다. 그들은 일본의 근대교육기관을

통해 서양의 근대학문을 체계적으로 교육받음으로써 당시의 지식인들 가운데 서양사상에 대해 가장 높은 수준의 이해를 가지고 있었고, 그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각종 신문과 잡지에 적극적으로 글을 투고하여 한국사회에 서양의 근대사상이 전파되는데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때문에 한말 일본유학생에 관해서는 근대지식의 수용과 전파에 있어 그들이 가지는 선도적인 위치에 주목하여 일찍부터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일본유학생에 대한 연구는 유학시기와 파견 주체에 따라 세분화하여 진행되었는데, 그 결과 유학생 파견 배경, 유학생의 규모와 구성, 유학생 단체와 활동, 근대학문의 수용, 계몽론, 국가론, 자유주의 인식 등 다양한 측면의 사실들이 규명되었다.¹⁾

그런데 기존에 연구들은 한말 근대지식의 수용과 전파에 있어 일본유학생들의 역할을 긍정하면서도 그것을 일제시기 근대사상의 전개, 특히 일본유학생들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다 할 수 있는 일제하 부르주아 사상 및 운동과 연결지어 이해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대개 부정적이었다. 한말에서 일제하에 이르기까지 사상사적 흐름을 연속적으로 파악한 연구 자체가 많지 않기도 했지만 그나마의 연구들

1) 주요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성과들이 참고된다. 阿部洋(1974), 「舊韓末の日本留學-資料的考察-I・II・III-」, 韓國學研究員, 『韓』 3권 5·6·7호; 김상기(1985), 「韓末太極學會의 思想과 活動」, 영남대학교 국사학회, 『嶺南史學』 1; 송병기(1988), 「開化期日本留學生 派遣과 實態」,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東洋學』 18; 김기주(1993), 「韓末在日韓國留學生의 民族運動」, 느티나무; 박찬승(1999), 「1890년대 후반 독일유학생의 현실인식」, 한국역사연구회, 『역사와 현실』 31; 박찬승(2000), 「1890년대 후반 관비유학생의 독일유학」, 『근대교류사와 상호인식 I』, 아연출판부; 박찬승(2009), 「1904년 황실 파견 독일유학생 연구」, 한국근현대사학회, 『한국근현대사연구』 51; 이태훈(2013), 「한말 일본 유학 지식인의 '근대 사회과학' 수용과정과 특징」, 이화사학연구소, 『梨花史學研究』 44; 노상균(2015), 「한말 '자유주의'의 수용과 분화 - 일본유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역사연구회, 『역사와 현실』 97; 김소영(2018), 「한말 독일유학생들의 현실 인식과 근대국가론」, 한국근현대사학회, 『한국근현대사연구』 84; 왕현중(2019), 「갑오개혁 이후 조선 유학생의 일본 유학과 유학 분야」, 역사실학회, 『역사와 실학』 69.

또한 대개 일제하 부르주아 운동에 기반이 되는 부르주아 이념 및 사상의 형성 시점을 대부분 병합 이후 1910년대 일본 유학생들에서부터 구하였다.²⁾ 지금까지의 연구들이 한말의 사상적 흐름과 그로부터의 영향을 완전히 무시한 것은 아니었지만, 전반적으로 그 연결성보다는 단절성이 부각되어 온 것이 일반적이었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상정해 볼 수 있다. 하나는 한말에 근대학문을 수용하고 계몽운동에 참여했던 유학생들 가운데 상당수가 병합이후 친일화 되었다는 역사적 사실 때문이다. 그로 인하여 민족운동사의 관점에서 주로 이루어진 기존의 한국 근대사 연구 속에서는 친일화 된 한말 지식인들은 상대적으로 연구 대상에서 소외, 배제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그러한 태도는 연구대상의 범위를 크게 축소시켜 한국 근대사상사의 전체적인 구도와 다양성을 파악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점에서 분명 지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³⁾

더하여 또 하나의 이유는 한말 일본유학생들의 사상 수준이 높지 않다는 인식에 있다. 강점 이전 일본유학생들의 학문 수준과 관련해서는 국내외의 복잡한 정치상황, 그들 자신의 출세지향적인 성격, 국망의 위기감 속에서 들뜬 분위기 등으로 인하여 학업에 전념하기 어려웠고⁴⁾ 그들이 쓴 글들 또한 계몽을 목적으로 한 원론적인 내용의 것이 대부분으로 그나마도 일본이나 중국에서 나온 글들을 번역한 것이

2) 대표적으로 박찬승(1992), 『한국근대정치사상사연구』, 역사비평사 ; 김경택(1998), 「1910·20년대 동아일보 주도층의 정치경제사상 연구」, 연세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 윤덕영(2023), 『세계와 식민지 조선의 민족운동-한국 자유주의의 형성, 송진우와 동아일보-』, 해안.

3) 물론 2000년대 중후반 이래로 이에 대한 반성으로 친일세력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들이 제출·축적되어 있는 상황이다. 특히 본고의 문제의식과 관련하여 친일세력들의 논리와 정치운동의 흐름을 한말에서 일제하까지 연속적으로 정리한 이태훈의 연구가 주목된다. 이태훈(2010), 「일제하 친일정치운동 연구」, 연세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4) 박찬승, 앞의 책, 112~116쪽.

많았으며, 국권회복이라는 당면 목표로 인하여 정치학, 법학에만 주로 관심이 모아져 상대적으로 경제학, 사회학 등에 대해서는 관심과 이해의 수준이 더욱 좋지 못했다는 것이 현재 학계의 일반적인 인식이다.⁵⁾ 이는 현상적인 측면에서는 분명 타당한 지적이며, 한말 계몽운동이 가지는 기본 속성과 한계이기도 하다.⁶⁾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한말 일제하 한국 근대사상사의 전개를 이해하는데 있어 한말 일본유학생들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 실제로 한말 일본유학생들 가운데는 설태희나 안국선 등과 같이 일제하 부르주아 운동에 참여하여 주요 논자로서 활약했던 인물들이 있을뿐더러, 비록 인적으로 직접 연결되지는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한말 지식인들이 보여준 서구문명에 대한 인식의 틀과 정치론, 경제론 등은 이후 세대에게는 하나의 참고자료로서 그들의 사상형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점을 미루어 짐작하기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⁷⁾ 그런 점에서 한말-일제초의 사상사, 특히 부르주아 사상의 형성과 발전 과정을 연속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5) 이러한 인식은 후대 연구자들의 평가뿐만 아니라 당시에도 이미 제기되었던 것이기도 하였다. 예컨대 황성신문은 “更張以後에 各學校와 見習生을 始設하고 教育을 實施되 專門이 現無하고 區別만 各殊하야 姑息之計로 簿書에 期會홀뿐이라 如今에 政治學이 無함으로 政治가 無術하며 法律學이 無함으로 法律이 無統하며 理財學이 無함으로 財政이 無策하고 其他各門學이 萬無一備하니 現今尋常普通에 不過한 教育初程으로 治平富強은 尙矣勿論하고 任官責職인들 豈曰綽裕리오”라고 하여 정치학, 이재학, 법학 전공자는 있으나 실제에 적용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춘 경우는 없다고 하여 근대교육기관에서 수학한 지식인들의 수준을 비판하였다. 「客問不然」, 『皇城新聞』, 1900년 10월 12일자, 제2면.

6) 한말 계몽운동기 서구근대사상의 수용 양상과 그 성격 및 한계에 대해서는 김도형(1994), 『대한제국기의 정치사상연구』, 지식산업사, 2장과 3장 참조.

7) 단편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1910년대 일본 유학생 시절 玄相允은 조선의 경제발전을 위한 방법으로 『商工業勃興』을 주장하면서 “이 의견으로 말하면 내가 비로소 제창하는 말이 아니오 벌써 오래 전부터 여러 선배가 극구 주장하던 바라 별로 새삼스러운 것이 없다.”라고 하여 사상의 형성과정에서 앞선 세대와 교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編輯人(玄相允, 1917), 「富의 必要를 論하여 商工業勃興의 急務에 及함」, 『學之光』 12, 36쪽.

주목되어 왔던 1910년대 일본유학생들뿐만 아니라 한말 일본유학생들까지 시야에 넣는 가운데 그들 간에 연속과 단절, 상호 영향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작업들이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한말 일본유학생들의 사상과 친일화 과정 및 논리에 대해서 보다 정치한 분석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와 관련해서는 일본유학생들의 계몽논리와 그 좌절 과정을 분석한 이태훈의 연구가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지만,⁸⁾ 유학생 일반의 대략적인 경향만을 파악하였을 뿐 유학시절부터 병합이후까지 시기에 따른 사상변화와 친일의 논리에 대해서 세밀히 검토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완할 지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에 따라 본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과 목표 하에 안국선을 중심으로 그의 사상 변화와 친일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의 소재로 안국선을 택한 것은 그가 1895년 관비유학생 출신으로 동경전문학교에서 정치학을 전공한 일본유학생 가운데서도 최고수준의 지식인이었다는 점, 여타 계몽지식인들 가운데서도 대한제국 정부와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략행위에 대해서 비교적 강한 비판의식을 가진 인물이었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합 직전 관직 생활을 시작으로 이후 친일의 길을 걸었다는 점, 병합 이후에도 정치, 경제 운동에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는 점 등에서 본 글의 목표를 해명하는데 있어 적합한 인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안국선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연구들을 통해 그의 사상과 행적의 대략적인 모습이 밝혀지긴 하였지만,⁹⁾ 계몽운동가에서 친일내각의

8) 이태훈(2013), 「한말 일본유학생들의 자기인식과 계몽논리」, 한국사상사학회, 『한국사상사학』 45.

9) 대표적인 연구로는 최기영(1991), 「안국선의 생애와 계몽사상(上)」, 일지사, 『한국학보』 17-2; 최기영(1991), 「안국선의 생애와 계몽사상(下)」, 일지사, 『한국학보』 17-3; 김효전

관료로 변해가는 구체적인 과정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히 해명되진 못하였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그의 친일행적을 이전까지의 활동과 단절시켜 이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그 원인과 논리에 대해서도 몇몇 계기가 될 만한 요인들을 언급하기는 하였으나, 사상적으로 체계적인 분석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기존 연구의 성과 및 한계를 염두하며 안국선의 사상변화 과정을 검토하되 특히 ‘정치’ 인식의 주목하여 이야기를 풀어나가고자 한다. ‘정치’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하는 것은 안국선이 정치학을 전공한 정치학도로서 그의 문제의식과 그가 제시한 해결책의 핵심이 바로 ‘정치’와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¹⁰⁾ 이에 대해서는 본문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Ⅱ. 유학 시기(1895~1899): 국가학적 ‘정치’ 인식과 정치가의 역할 강조

안국선은 1879년 음력 12월 5일 경기도 양지군 봉촌에서 안직수(安稷壽)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그의 초명은 明善(죽보엔 周善)으로 國善은 1907년에 개명한 이름이다. 그의 집안은 7대조 이래로 관직에 전혀 나가지 못했던 사실상 평민에 가까운 한미한 집안이었다. 그런데 안국선의 재종백부였던 안경수(安卿壽)가 갑오정권에서 군부대신에

(2010), 「안국선의 와세다 시대」,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47; 서재길(2017), 「경찰 기록으로 본 『금수회의록』 텍스트의 생산 과정」, 민족문화사학회, 『민족문화사연구』 65를 참고.

10) 이는 비단 안국선뿐만이 아니라 스스로를 국가를 개혁해나갈 핵심세력으로 자부하였던 일본 유학생들의 일반적인 특성이기도 하였다. 이태훈(2013), 「한말 일본 유학 지식인의 ‘근대 사회과학’ 수용과정과 특징」, 이화사학연구소, 『梨花史學研究』 44, 64쪽.

오르게 되면서 안국선에게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안경수의 주선에 힘입어 만 17세에 관비유학생으로 선출되어 일본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던 것이다. 일본으로의 유학은 안국선의 사상이 형성되는데 있어서 첫 번째 중요한 계기였다.

관비유학생 파견은 당시 정부개혁의 주체였던 갑오정권이 서양의 선진 기술과 지식을 배우고 향후 개혁을 이끌어나갈 관료 양성을 목적으로 추진한 것이었다. 갑오정권의 유학생 파견 사업은 1895년 4월 당시 내무대신이었던 박영효의 훈령 아래 114명의 유학생을 선발하여 일본의 경응의숙(慶應義塾)에 입학시킨 것을 시작으로 1896년 초까지 대략 200여명의 학생들이 일본으로 파견되었다.¹¹⁾ 그들 중 한명이었던 안국선은 1895년 8월에 경응의숙 보통과에 입학하여 1년간 교육을 받고 1896년 7월 30일에 졸업하였다. 보통과를 졸업한 후 안국선은 동경전문학교(東京專門學校, 지금의 와세다대학교) 방어정치과(邦語政治科)에 진학하였다.

정치과로의 진학은 안국선이 스스로 선택한 것이었다. 당초 관비 유학생을 파견한 갑오정권은 유학생 파견의 목적으로 서구문물의 수용보다도 우선은 당장의 시급한 실무관료의 부족을 해결하는데 일단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따라서 보통과를 졸업한 학생들로 하여금 각 관청에서 군대, 경찰, 우편, 항해, 염직, 양잠 등 실무교육을 받게 하였다.¹²⁾ 그러나 정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안국선을 위시한 상당수의

11) 송병기(1988), 『開化期 日本留學生 派遣과 實態』,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東洋學』 18, 258쪽.

12) 이는 당시 학부대신이었던 박정양이 유학생들에게 한 훈시에서도 잘 드러난다. 그는 ‘本 大臣이 聖志를 欽奉하여 聰俊을 선발하여 이웃나라에 파견함은 제군들로 하여금 各科로 나누어 實用사무를 강구하여 知識을 넓히고 事리를 깨우쳐 國세고 불굴하는 정신으로 독립 문명한 세상의 필요에 응할 것을 바라노니...’라고 하여 정부의 유학생 파견이 애초부터 실무교육에 있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大朝鮮留學生親睦會(1896),

유학생들은 실무교육보다는 정치학, 법학, 경제학 등 서양의 근대 학문에 보다 큰 관심을 가졌으며, 자신의 전공을 택하는데 있어서도 실무관련 학과보다는 정치, 법률, 경제에 관한 학과를 선택하는 경향이 강하였다.¹³⁾ 안국선의 정치과 진학 또한 그 가운데 하나였다.

그렇다면 안국선이 전공으로 정치과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안국선의 전공 선택은 무엇보다도 조선의 현실에 대한 그의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 시기 조선은 내외외환의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대외적으로는 청일전쟁의 승리로 한반도에서 일본의 지배력이 증가하는 가운데 서양 열강에 의한 이권 침탈이 심화되고 있었고, 대내적으로는 조선 후기 이래 누적되었던 사회경제적 모순과 대외 문제의 해결 방안을 두고 정부와 보수적 유생층, 민중층이 서로 대립 · 충돌하고 있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안국선을 비롯한 유학생들은 대부분 조선의 현실에 대해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으며, 자연히 그들의 관심과 문제의식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개혁 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집중되었다. 예컨대 안국선과 함께 경응의숙 및 동경전문학교 정치과에서 수학하였던 김용제(金鎔濟)는 지금 조선이 처한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동서 교통 이래로 구미 제국이 주목하는 바는 오직 동양이로다. 열국이 다투어 동양의 틈을 엿보며, 功을 다투고자 하여 兵備, 戰艦을 요구함은 東亞의 만리 沃野를 빼앗아 황색인종을 점유함에 뜻이 있어 그러하도다. 하물며 조선은 유럽과 아시아가 교차되는 경계에 있어 국세융성하여도 자립과 동양의 유지함이 항상 위태로워 마음을 놓으며 걱정을 풀기가 어렵거늘 하물며 내치외정이 연이어 실패하여 革新開明에 진보치 못하고 있으니 오죽하리오. 그러나 동양을 유지함은

『親睦會會報』 1호, 15쪽.

13) 유동훈(2000), 「韓末 渡日留學生의 文明開化論과 法思想 研究」, 연세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14쪽.

오직 조선에 있고, 조선의 유지함은 혁신진보에 있으니 革面改心하여 단연 일체의 情實을 포기하여 던져버릴지로다.¹⁴⁾

서구 열강이 동양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상황에서 조선은 지정학적으로 동양과 서양의 경계에 위치해 있어 더욱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더욱이 내치와 외정이 연이어 실패한 상황이라 혁신진보치 않으면 나라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국가적 위기상황을 맞이하여 ‘부국강방’, ‘문명개화’를 통해 침탈당한 국권을 회복하는 것은 유학생들의 공통된 최종목표였다.¹⁵⁾

국권을 회복하기 위한 유학생들의 노력은 크게 두 가지 작업을 통해 이루어졌다. 한국이 처한 현실을 직시하고 그 원인을 파악하는 것과 서양 문명국들이 가진 힘의 원천이 무엇인지 탐구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사실상 연결되어 있는 두 작업은 궁극적으로 ‘서양과 한국 간에 힘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한 시도였다. 각자가 배운 근대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방식의 접근과 분석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지금의 국력 부진을 야기한 주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것은 인민들의 원기와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예컨대 홍석현(洪奭鉉) 그는 안국선, 김용제 등 보다 앞선 동경전문학교의 첫 번째 조선인 정치과 전공자였다는 ‘우리나라가 제법 땅도 넓고 인구도 많고 물산도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富하지 못한 것은 인민들이 공부가 부족하고 노력하는 자가 희귀하여 그 이득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¹⁶⁾ 김용제는 ‘서양의 일등국들을 보면 모두 인민이 원기왕성하여 정치, 산업, 학술 등에서 혁신개량을 주도함으로써

14) 金鎔濟(1896), 「國民之元氣鎖磨方今大憂慮」, 『親睦會會報』 3호, 30쪽.

15) 李廈榮(1896), 「學問」, 『親睦會會報』 1호, 14쪽.

16) 洪奭鉉(1896), 「大朝鮮君主國形勢如何」, 『親睦會會報』 1호, 1896, 20-21쪽.

문명진보를 이루는데, 오직 우리나라의 인민들만 문명진보의 실무도 모르며 발명 발견은 고사하고 모방도 할 줄 모르니 혁신진보가 시급한 현 상황에서는 인민의 원기를 진취시켜 활발하게 만드는 것이 최대급무’라고 지적하였다.¹⁷⁾ 안국선 또한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대체로 보아 세계에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자주독립의 이름이 이미 있는, 곧 또 자주독립의 실체가 있는 그런 뒤에 완전한 독립국이 될 수 있으니 독립의 실체는 국민이 마음을 합하고, 몸을 모아 그 나라를 사랑하며, 그 나라를 지킴에 지나지 아니하다’¹⁸⁾고 하여 다른 유학생들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부진과 발전, 독립의 여부는 인민에게 달린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이처럼 국가 부진의 근본적 원인이 인민에게 있고 따라서 인민들의 원기와 역량을 발달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한다면, 그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와 관련하여 안국선은 인민의 심리를 파악하고 계도하여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정치’라고 규정하고, 그것은 정치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였다. 곧 안국선은 ‘정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정치라 이르는 것은 뱃사공이 배를 조운하는 것과 같으니 인민은 물과 같고, 국가는 배와 같은지라 물은 배를 싣기도 하고, 배를 뒤집기도 하나, 배를 싣게 하며, 배를 뒤집히게 함은 뱃사공의 책임이다. 이런 까닭으로 뱃사공은 물의 성질에 익숙하며, 물길에 익숙한 뒤에야 배를 조운할 수 있어서 비록 꼬불꼬불한 작은 길과 바람이 불고 물결이 일어 하늘을 치는 때라도 무사함을 지킬 수 있는 것이니 정치가라는 사람은 먼저 인정을 꿰뚫은 그런 뒤에 행정을 논할 수 있을 것이다.¹⁹⁾

17) 金鎔濟, 앞의 글, 33-34쪽.

18) 安明善(1897), 「북미합중국의 독립사를 열하다가 아 대조선국독립을 논함이라」, 『大朝鮮獨立協會會報』 4, 8쪽.

19) 安明善(1896), 「정치의 득실」, 『靑陸會會報』 3호, 21쪽.

뱃사공이 물의 습성을 파악한 후에야 험한 길과 굵은 날씨에도 무사히 배를 움직일 수 있는 것과 같이 인민의 정서를 파악하여 국가를 운영하는 행위가 바로 정치라는 것이었다. 인민은 물과 같아 배를 싣기도 하고 뒤집기도 하는데 배를 뒤집히게 하는 것이 뱃사공의 책임이듯 인민이라는 바다가 배를 뒤집히게 만드는 것 또한 정치가의 책임인 바, 정치가는 행정 이전에 인민의 정서를 파악하고 계도하여 국가 운영의 원동력으로 만드는 것을 우선과제로 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정치를 정치가가 국가를 위해 인민을 교화, 통치하는 행위로 이해하는 국가학적인 인식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이 시기 안국선의 ‘정치’ 인식이 가지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모습은 안국선과 같은 시기 경응의숙에서 수학했던 윤세용(尹世鏞)의 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윤세용은 인민이란 항심과 정의가 적은 부동하는 존재로, 정치가의 일언(一言)은 능히 국민의 원기를 발흥 시키거나 억누를 수 있고 정치가의 일행(一行)은 능히 인민을 교화도 폐적도 가능하다고 하면서 정치가는 국가원기의 대표가 아니라 지도의 기추라고 주장하였다.²⁰⁾

나라의 부진, 발전의 여부가 인민에게 달려 있고, 그 인민의 원기를 발달시키고 국가 운영의 원동력으로 만드는 것이 다시 정치가에게 달려있는 만큼 정치가의 역할과 책임은 실로 막중한 것이었다. 정치가의 역할은 비단 그뿐만이 아니었다. 안국선은 조선이 영원한 독립을

20) 尹世鏞(1896), 「政治家 言行論」, 『親睦會會報』 3호, 24~25쪽. 이는 이시기 일본의 학계가 정치학을 국가통치학의 일부로 간주했던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비록 안국선이 수학했던 동경전문학교는 정당정치를 선호하고 정치를 동태적으로 파악코자 했던 영미식 정치학의 전통을 가지고 있기는 하였지만 그럼에도 학계의 주류적인 흐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았다. 유학생들 또한 자신의 문제의식과 관련하여 일본 학계의 국가주의적 풍토로부터 일정 부분 영향을 받았다. 이 시기 일본 정치학계의 학풍에 대해서는 김효전(2000), 『근대한국의 국가사상』, 철학과 현실사, 570-573쪽을 참고.

보존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교육을 널리 펴서 인민이 실제 배움과 실제 일에 연구하게 하며, 법전을 제정하여 인민이 복종할 의무에 집지게 하며, 외교를 좋게 하여 여러 나라와 교통을 편하게 하며, 군비를 확장하여 밖의 업신여김을 막아 지키게 하고, 가까운 이웃 청나라와 일본을 사귀어 벗하며, 서양에 유럽 주와 아메리카 주를 타고 채찍질하여 우리 대조선국의 문명으로 육대주에 높이 뛰어나게 해야 한다'고 말하였는데, 그러한 일을 주도하는 주체 또한 정치가였다.²¹⁾ 나아가 안국선은 정치제도의 성패 또한 정치가에게 달려 있다고 보았다. 그는 곧 '유럽 고대 로마국은 공화정치였지만, 지금 쇠하여 망하였으니 어찌 전제정체는 모두 나쁘며, 입헌정체는 모두 좋을 뿐이겠는가? 일을 맡은 사람이 적절하게 잘 쓰며, 절절하게 잘 쓰지 못함에 있도다.'라고 하여 대의정치의 우세를 말하면서도 그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에게 있다고 지적하였다.²²⁾

그런 만큼 정치가는 엄격한 자격이 요구되었다. 정치가라 함은 다만 정치에 숙달해 환히 통할 뿐 아니라 일에 당한 사람을 일컫는 것이니, 말로만 열거하는 것이 아니라 실재를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 민생의 이해를 살피고, 정강치도의 득실을 알고, 시사기미(時事機微)의 움직임을 알고, 세계대세의 어떠함을 꿰뚫어 치국평천하의 꾀를 수행하는 것이 정치가의 이름을 얻을 수 있는 실재이다. 그를 위해서는 첫째로 중심이니 중심이 있어 중앙정부를 조직하기를 굳고 단단하게 해야 할 것이오, 둘째는 공성(公誠)이니 천하를 먼저 하고 내 몸을 뒤로하여 국가 민생의 행복을 더해 나아가게 하며 정강치도의 공평하고 바름을 완전히 해야 할 것이오, 셋째는 시세에 꿰뚫는 것이니 때에

21) 安明善(1897), 앞의 글, 8-9쪽.

22) 安明善(1896), 앞의 글, 22쪽.

당하여 문(文)을 높이기도 하며 무(武)를 높이기도 하고, 또 때를 따라 단단하고 강한 정략도 행하며 연약한 정략도 행할 수 있어야 하니 이것이 바로 정치가에게 요구되는 자격이라는 것이 안국선의 생각이었다.²³⁾

정치가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고 요구되는 역량 또한 높다고 할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자는 바로 안국선 자신이었다. 안국선은 유학생들의 기관지 『친목회회보』에 기고한 자신의 첫 번째 글에서 一見과 百聞의 우열을 논하는 가운데 학업을 닦는 젊은이들은 큰 정치가와 큰 상인될 마음으로써 정치론, 실업론을 읽으면 스스로 마음에 모아 얻는 바가 있고, 실제 일에 임하더라도 생각의 반을 지나는 사람이 많고, 정계, 상계의 참맛을 깨달아 알게 된다고 하여 자신이 되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를 간접적으로 드러낸 바 있었다.²⁴⁾ 이는 비단 안국선뿐만 아니라 유학생들의 일반적인 자의식이기도 하였다. 유학생들은 친목회 회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今에 吾人이 旨를 立하고 憤을 發하여 外邦에 遊하여 學問을 另着함은 聞見을 淵博하고 知識을 闡明하여 國家政治의 基礎와 棟梁을 自期하고 文明開化의 精神과 骨子를 自任하자 함이나라고 하여 스스로를 개혁을 이끌어갈 핵심주체로 자부하고 있었다.²⁵⁾ 국가적 위기상황 속에서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던 유학생들의 문제의식 속에는 정부의 중심축으로 성장하고 싶었던 그들의 상승욕구 또한 담겨 있었던 것이었다.²⁶⁾ 한미한

23) 安明善(1897), 「정도론」, 『親睦會會報』 5호, 39~40쪽.

24) 安明善(1896), 「인견과 백문의 우열」, 『親睦會會報』 2호.

25) 「會旨」, 『親睦會會報』 1.

26) 여기에는 유학생들의 출신 배경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유학생들은 비록 갑오정권의 관료 및 요인들과 일정한 인적 관계를 가지고 있기는 하였으나 대부분 전통적인 명문양반가문 출신과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이다. 김영모(2002), 『조선지배층 연구』, 高憲出版部, 431-433쪽; 유동훈, 앞의 글, 10쪽.

집안 출신인 안국선의 경우 더욱 그러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실제로 유학시절 안국선이 쓴 글이 모두 다 정치 및 정치가에 관한 것이었다는 점을 통해서 이를 간접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데,²⁷⁾ 아마도 자신의 후원자였던 군부대신 안경수처럼 되는 것이 그의 희망이지 않았을까 사료된다.

이처럼 스스로를 국가개혁을 이끌어갈 핵심주체로 자부하는 가운데 국가운영의 학문이자 오늘날 조선이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학문이라 할 수 있는 정치학을 전공으로 택한 안국선은 1899년 7월 동경전문학교를 무사히 졸업하였다. 그러나 그 사이 국내정세는 당초 그가 정치학을 선택한 이유와 포부를 제대로 발휘하기 어려운 지경으로 변해 있었다. 관비유학생을 선발하여 일본에 파견 하였던 갑오정권이 아관파천을 계기로 붕괴되었던 것이다. 안국선의 후원자였던 안경수 또한 1898년 고종의 양위를 모의하다 발각되어 일시 일본으로 망명했다가 귀국 후 체포되어 결국 처형되었다. 이러한 국내정세의 변화로 유학생들이 크게 동요하는 가운데 안국선은 그럼에도 일단 귀국하였으나 곧바로 경무청에 체포되었다. 함께 귀국한 유학생 친구 오성모(吳聖模)가 박영효 역모사건에 연루되어 있었던 탓이었다. 안국선은 미결수상태로 한성감옥서에서 1904년 3월까지 갇혀 있다가 결국 종신유배형에 처해져 전라도 진도군 금갑도(金甲島)로 유배를 가게 되었다.²⁸⁾

이러한 일련의 상황은 유학시기 동안 형성되었던 안국선의 사상과

27) 유학시절 안국선이 쓴 글들은 다음과 같다.

安明善(1896), 「一見과 百聞의 優劣」, 『親睦會會報』 2; 安明善(1896), 「政治의 得失」, 『親睦會會報』 3; 安明善(1897), 「北美合衆國의 獨立史를 閱하다가 我 대조선국 독립을 논함이라」, 『大朝鮮獨立協會會報』 4; 安明善(1897), 「정도론」, 『親睦會會報』 5; 安明善(1898), 「大韓國에 對する 露國의 處置に 就て」, 『太陽』 4-11, 1898.

28) 최기영(1991), 「안국선의 생애와 계몽사상(上)」, 일지사, 『한국학보』 17-2, 130-132쪽.

당초의 구상이 온전히 실현되기 어려워졌다는 것을 의미했다. 따라서 이후 안국선은 이러한 상황 변화에 맞추어 자신의 생각 또한 일정 부분 수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Ⅲ. 계몽운동 초기(1906~1907): ‘정치’ 영역의 확장과 인민의 역할 강조

오랜 수감·유배 생활에서 벗어나 안국선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은 1906년 무렵으로 동경전문학교를 졸업한지 이미 7년이 지난 시점이었다. 공식적으로 유배에서 풀리게 된 것은 1907년 3월 20일의 일이었지만,²⁹⁾ 1906년 9월부터 서울에서 발행되던 잡지에 여러 차례 원고를 게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그 무렵을 전후로 해서는 이미 서울에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어찌되었든 유배 생활이 끝났으니 안국선은 당초의 구상과 희망대로 관료로 진출하여 정치가로서 활동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상황은 여전히 그의 바람과는 거리가 멀었다. 앞서 보았듯이 유학시절 국가적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안국선의 방안은 우수한 정치가들이 중심이 된 국가가 주체가 되어 인민을 계도하고 그들을 국가 운영의 원동력으로 삼아서 내정과 외교를 개혁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안국선이 다시금 활동에 나설 무렵의 대한제국 정부는 러일전쟁 이후 한국의 저항을 무력화시키기 위하여 취해진 일본의 강압적 조치들로 인하여 이미 개혁을 추진할 만한 충분한 행정력을 가지지 못한 상태였다.³⁰⁾ 역적으로

29) 『司法』, 『舊韓國官報』 1907년 3월 27일자.

30) 러일전쟁이후 일본의 국권침탈과정과 대한제국의 대응에 대해서는 서영희(2003), 『대한제국 정치사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3장 참조.

죽은 안경수의 인척이라는 출신 상의 한계는 둘째치더라도 출사할 정부가 제 역할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의 방안은 근본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운 것이었다. 따라서 안국선은 자신의 구상을 일정 부분 수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자신의 구상을 수정하는데 있어서 우선 안국선은 국가의 부진과 발전, 독립의 여부가 전적으로 인민의 원기에 달려 있다는 인식은 일단 그대로 견지하였다. 안국선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야! 슬프구나. 국민 원기가 닳아 없어져 떨치지 못하니 나라는 무엇을 믿고 의지할 수 있을까? 야! 슬프구나. 나라 주권이 위태로워 지키기 어려우니 백성은 무엇을 믿을 수 있을까? 나라는 백성의 원기를 믿고 의지해야 설 수 있고 백성은 나라의 주권을 믿어야 존재할 수 있는데, 백성의 원기가 오래도록 이미 미약한지라 나라의 주권이 어찌 아주 단단하고 굳을 수 있겠는가? 국운의 성쇠는 국민의 원기의 쇠해 줄어감과 성해 늘어감이 어떠한가에 달려있으니 民元이 닳아 없어지면 그 나라가 망하고, 민원이 성해 늘어가면 그 나라가 흥함은 오늘날 많은 나라가 나란히 서서 서로 경쟁하는 시대에 피하지 못할 원칙이다. 그러므로 국세의 미약이 근심할 만한 것이 아니라, 민원의 없어져 잃음이 바로 근심할 만하며, 정치의 어지러움이 탄식할 만한 것이 아니라, 풍속의 부패가 정말로 탄식할 만한 것인 듯하다.³¹⁾

인민의 원기가 없어지면 나라가 망하고 원기가 성해 늘어나면 나라가 흥함은 오늘날 경쟁의 시대에서는 변할 수 없는 원칙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일시적인 국세의 미약함보다도 풍속이 부패하여 민원이 없어지게 되는 것을 더 근심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즉 인민의 원기를 발달, 진취시키는 것은 안국선에게 여전히 최우선의 해결과제였다. 오히려 국가의 위기가 심해진 만큼 그것은 더욱 절실한 문제로 여겨졌다.

31) 안국선(1907), 「민원론」, 『夜雷』 2, 15쪽.

그런데 앞서 확인했듯이 유학시기 안국선은 인민을 계몽하여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정치’라고 규정하고 그것은 국가(정치가)가 주체가 되어 주도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러한 인식으로는 국가의 행정력이 약화되고 자신이 정부에 참여할 수 없는 현 상황에서는 마땅한 대응책을 찾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치’에 대한 인식을 일정부분 변화시켜야만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이시기 안국선은 정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인류는 정치적 동물’이라 함은 그리스의 석학 아리스토텔레스 씨가 이천 년 이전에 알아차린 진리이다. 정치는 인간생활의 필요조건이 될 뿐 아니라, 또한 사람이 본디 가진 성질과 마음이니 저 사리에 어둡고 미개한 인류가 집에 가장을 받들고, 마을에 우두머리를 받들어 그 권력에 복종하여 외부의 침범으로 인한 피해를 막으며, 내부의 평화를 유지하는 까닭이 그 정치적 성정의 드러냄이 아니면 무엇인가? 그러므로 인류의 집단이 있으면 정치가 여기 있고, 정치가 이미 있으면 조직이 짝으로 있어 나라 운세의 쇠함 및 성함과 백성의 기쁨과 근심 걱정이 여기에 관계하지 않음이 없으니 이것이 예와 지금의 학자와 정치가가 국가조직에 두뇌를 다 써버리며, 뜻있는 선비와 어진 사람이 좋은 정치에 몸과 마음을 다 써버리는 까닭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그렇지 않거든 죽음을 달라’ 함은 백성이 완전하고 좋은 정치조직을 몹시 바라는 소리요, ‘백성의 소리는 곧 하늘의 소리라 함은 나쁜 정치를 계속할 수 없다는 다른 이름이다.’³²⁾

정치는 인간 생활의 필요조건이자 사람이 본디 가진 성질과 마음으로, 인류의 집단이 있으면 반드시 정치가 있으며 나라의 운세, 백성의 기쁨과 근심 걱정이 모두 다 정치에 관계하지 않는 게 없는 만큼 학자와 정치가는 물론이요, 선비와 어진 사람,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좋은

32) 안국선(1908), 「정치학 연구의 필요」, 『畿湖興學會月報』 2, 28-29쪽.

국가조직과 정치를 바라마지 않으며 그것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는 유학시절 정치를 인민에 대한 국가의 통치행위로 이해하였던 것과는 분명히 다른 견해였다. 국가의 성쇠가 정치에 달려있다는 인식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나, 정치를 인간생활의 필요조건으로 보고 사람은 누구나 정치적 성정을 가지고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정치활동의 주체를 정치가뿐만 아니라 지식인과 덕망가, 일반 백성에게까지 확대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 하에서는 국가 주도의 정치 활동이 어려워질 경우 자연스럽게 그것은 지식인과 덕망가가 대신해야 할 역할로 설명되어지게 된다. 그에 따라 안국선은 이제 적극적인 계몽활동에 나서게 되었다. 그는 돈명의숙(敦明義塾)과 광신상업학교(廣信商業學校) 교사로 재직하면서 교육에 힘쓰는 한편, 대한자강회를 비롯한 각종 학회 및 사회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였으며, 연설회나 토론회에 참석해 자신의 지식과 주장을 대중들에게 직접 전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가 가장 주력한 계몽활동은 바로 저술 및 번역 활동이었다. 이 시기 안국선은 그의 생애에서 가장 활발한 저술활동을 전개해 나갔다. 『정치원론(政治原論)』(1907), 『외교통의(外交通義)』(1907), 『비율빈전사(比律賓戰史)』(1907), 『연설법방(演說法方)』(1907), 『행정법』(1908), 『금수회의록(禽獸會議錄)』(1908), 『상업경영법』(1909), 『상행위법』(미상) 등을 강술 및 번역하였으며, 그 외에도 다수의 논설들을 신문이나 잡지에 투고하였다.³³⁾

안국선의 사상 변화는 당연히 그의 저술에도 반영되었다. 유학시절과 비교해서 이 시기의 저술 활동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유학시절의

33) 안국선의 계몽 활동에 대해서는 최기영, 앞의 글을 참고.

글들이 거의 다 정치에 관한 글들이었던 반면에 이 시기는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를 주제로 한 글들이 다수 쓰여졌다는 점이다. 경제문제는 ‘부국강병’과 ‘식산흥업’이라는 슬로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교육 문제와 더불어 계몽운동기 국권회복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과제이자 관심사였고, 이는 안국선도 마찬가지였다. 안국선 실업을 강조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실업 조선을 조성해야지. 우리나라가 지난날에는 실업을 권해 힘쓰지 않고 천연적으로 오늘날까지 이르러 산과 바다의 寶藏이 지금까지 완전하니 곧, 이것을 개발함이 우리 대한제국 백성의 마땅히 행할 의무이다. 사람은 예사롭지 않은 화를 만나 낙심하지 말고 전화위복의 길을 생각함이 옳도다. 지금에 우리 대한제국이 예사롭지 않은 곤란한 처지에 있어 선후를 경영함에 일반 백성이 櫛風沐雨하고, 실업에 종사하여 온 나라의 재산 정도를 증진하면 철도, 함선이 순서대로 만들어져 정권은 잃었더라도 실제 권력은 얻어 지켜 뒷날에 회복할 방법이 있을 것이니, 공연히 경거망동하지 말고 실업을 얻기에 힘쓰고 힘써야 할 것이다.³⁴⁾

비록 정권을 잃었지만 실업 부흥을 통해 실제 권력을 얻어 지킨다면 뒷날에 정권을 회복할 방법이 있을 것이라는 말이었다. 이는 전형적인 실력양성론으로 그다지 특별한 주장이라 할 수는 없지만 안국선 개인의 사상 변화와 관련해서 살펴보면 유학시기의 글과 일정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유학시절 안국선의 구상에서 인민은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 정부를 운영하는데 있어 주요 고려대상이기는 하였지만 국권 회복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정치가였다. 유학시절 그의 글이 대개 정치가의 역할과 자격에 대한 내용들로 이루어졌던 것은 바로 그 때문이었다. 반면에 위에 글에서 인민은 비록 계몽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실력양성과

34) 안국선(1907), 「대한금일선후책」, 6쪽.

국권회복의 주체로서 그려지고 있다. 물론 『정치원론』, 『연설법방』 등 안국선이 쓴 책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는 여전히 정치가의 역할을 중요시하고 있었지만, 한편에서는 이처럼 인민의 역할을 강조하고 그와 관련하여 다수의 경제관련 글들을 저술, 번역함으로써 자신의 학문연구범위를 넓히고 있어 보다 진전된 안국선의 사상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중요한 변화이긴 하지만 본질적인 것은 아니었다. 정치의 영역과 주체가 확장되기는 했지만 안국선은 여전히 정치는 근본적으로 국가운영을 위한 통치행위라고 생각하였다. 예컨대 이시기 안국선이 번역한 『정치원론』에서는 정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정치의 학문을 자세히 살펴 연구하고자 한다면 마땅히 정치를 먼저 알아 필요하니 대체로 보아 '정치'는 법률로 위아래의 각각 나뉘를 정하여 위에는 아래를 다스리는 권리가 있고, 아래에는 위를 따르는 책임이 있는 것이다... (중략)...그러나 한 부락이 있어 아래가 위에 복종함과 위가 아래를 다스림이 혈족과 도덕으로 따름이 아니요, 법률과 규칙으로 정함이면 곧, 정치의 관계가 생겨나 그 사회를 정치사회라 말할 수 있고, 그 사회의 크고 작고 넓고 좁음을 따라 혹은 시골의 작은 도시가 되며, 혹은 도읍 같은 큰 도시가 되어 나누어 말하면 각각 그 정치사회요, 모아서 말하면 한 나라의 정치구역이니 작은 도시와 큰 도시에 위아래 관계가 있는 것이라야 정치사회라 할 것이요, 독립국과 독립국 사이에는 정치관계가 없는 까닭으로 세계 여러 나라를 합하여 한날 정치사회라 일컫기는 할 수 없도다. 여러 나라 공법이 비록 한 종류 법률이나 이 법률을 실행하는 정부가 없어 그 힘이 위아래의 각각 나뉘를 바르게 하지 못하니 이것으로 말미암아 본다면, 정치사회의 구역은 작으면, 곧 한 부락에 그치고 크면 곧 하나의 독립국에 그치고 위아래의 관계가 없으면 정치사회라 말하지 않는 것이다.³⁵⁾

35) 안국선(1907), 『정치원론』, 1-4쪽.

정치란 법률로 치자와 피치자를 규정하고 각각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것이란 말이었다. 더하여 정치란 각각의 정치사회로 구성되어있되 그 크기에 따라 위아래의 관계가 있으며, 그 최종범위는 국가라는 것이 안국선의 생각이었다.

이러한 인식 구도에서 사회영역에서의 정치 활동은 국가가 정한 법률과 규칙에 따라야 하고 최종적으로는 국가 영역에 수렴되어야만 하는 것이었다. 그런 점에서 안국선의 사회활동과 실업부흥의 강조는 어디까지나 부득이한 시세를 극복하기 위한 차선택 이상은 될 수 없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고할 수 있다.

오늘날 유신경장하는 시대를 즈음하여 위아래가 한결같은 마음에 지극히 마땅한 경영을 할 자는 산업을 권해 힘써 나라의 근본을 복돋아 기르고, 백성의 힘을 증진하는 하나의 일이 오직 있도다. 이것을 경영해 얻은 그런 뒤에야 나라의 여러 가지 유신사업과 사회의 모든 개량방침이 그 효과를 비로소 아될 것이니 오늘날 형편으로는 정부에 대하여 정치, 법률 등의 유신으로 나라의 문명부강을 바라기는 ‘모래를 짜서 기름을 구함’보다 어려운 일이니 곧 차라리 화폐나 정리하여 금융을 잘 가다듬고 정리하며, 도로나 고치고 다져 교통을 편리하게 하여 산업의 발달을 도와주는 사업이나 정부에 이것을 바라고, 일반 백성은 실업에 오로지 마음 써 생산의 진작을 힘써 도모해야 할 것이다.³⁶⁾

이글은 이 시기 안국선의 생각을 이해하는데 있어 두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첫째는 앞서 언급했던 대로 안국선에게 있어 우선순위는 정치가 경제보다 앞서고 있으며, 실업 진작은 차선택이라는 점이다. ‘원래 정치를 좋게 개량하여 그 마땅함을 얻어야 여러 사업을 차례로 마칠 수 있는 것이지만, 오늘날 우리 대한제국의 형편은 일종의 특별한 경우에 당하였으니깐 원칙대로 한결같이 따를 수 없기 때문에

36) 안국선(1907), 「조합의 필요」, 『夜雷』 5,

오늘날 교회와 실업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³⁷⁾ 두 번째 시사점은 어쩔 수 없이 차선택으로 실업을 발달시키는데 있어서도 정부의 역할이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는 점이다. 실업에 힘써 생산을 진작시키는 것은 인민의 일이지만 그를 위해서는 정부가 화폐와 금융을 정리하고 도로와 교통을 편리하게 하는 등 최소한의 인프라를 구축해주어야만 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정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역할이자 그의 차선택이 이루어지기 위한 전제조건이었다.³⁸⁾

따라서 최소한의 정책도 시행하지 못하는 현 대한제국정부는 안국선에게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안국선은 통감부의 간섭으로 운신의 폭이 좁은 대한제국 정부의 곤란한 사정을 이해하면서도 그들의 무능력한 정책이 나라의 독립을 해치고 국민의 행복을 깨고 우리 사회의 문명을 가로막고 있는 만큼 도저히 침묵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³⁹⁾ 계몽운동에 종사하면서 교육과 실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는 있지만 정치 중시, 국가 중심의 사고방식은 계속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요컨대 이 시기 안국선은 국가의 행정력이 약화되고 자신이 정부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여 유학시절의 구상을 일정부분 수정, 정치의 영역을 확장하고 인민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지식인으로서 계몽운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논리를 마련해 내었다. 그러나 그것은 본질적인 사상변화는 아니었다. 그는 여전히 정치를 우선적인 과제라고 보았고, 계몽 활동은 어디까지나 차선택으로 생각하였다. 인민을

37) 안국선(1907), 「대한금일선후책」, 1-2쪽.

38) 이는 안국선과 함께 유학하였던 관비유학생들의 일반적인 생각이기도 하였다. 일본유학생들의 경제론에 대해서는 노상균(2015), 「한말 '자유주의'의 수용과 분화: 일본 유학생을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97, 357~361쪽 참고.

39) 안국선(1907), 「정부의 정책을 공격하는 연설」, 『연설법방』.

계몽하고 실업을 진작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어서도 국가 중심의 사고방식은 부분적이거나 여전히 잠재해 있었다. 한말 대표적인 계몽운동가로 알려진 안국선이지만 실상 그의 계몽활동은 이처럼 불안정한 사상적 기반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상황에 변화에 따라 그의 행동이 쉽게 바뀔 수도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IV. 계몽운동 후기(1908~1910): 입헌정치·여론정치의 주장과 정당정치론

1907년 6월 27일 안국선이 자신의 처신을 결정하는데 있어 영향을 미칠 만한 일이 생겼다. 그의 재종백부이자 정치적 후원자로 앞서 모반죄로 처형되었던 안경수의 신원이 칙령에 의해 복원되었던 것이다.⁴⁰⁾ 이제 그의 관직 진출을 가로막던 역적의 인척이라는 장애물은 사라졌다. 실제로 그는 1907년 11월 30일자로 황실재산정리국의 사무관으로 임명되었다. 본인이 일찍이 바라왔던 출사의 길이 마침내 열리게 된 것이다.⁴¹⁾

그에 대한 안국선의 반응은 분명했다. 그는 주저하지 않고 출사하여 관료가 되었다. 황실재산정리국 사무관직은 금방 의원면직되었으나,

40) 「宮廷錄事」, 『舊韓國官報』 1907년 7월 1일자

41) 여기에는 통감부의 의도가 일정부분 반영 되어 있었다. 당시 통감부는 식민지배를 위한 시정개선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한국의 관습에 익숙하면서도 일본의 개혁 논리에 공감할 수 있는 실무관료를 필요로 하고 있었다. 그 결과, 안국선을 위시한 일본유학 출신자들의 관직 진출이 활기를 띠게 되었다. 일본의 교육기관에서 서양의 근대학문을 전공한 그들은 통감부가 원하는 관료상에 정확히 부합하는 인물들이었기 때문이다. 이영미 지음·김혜정 옮김(2011), 『한국사법제도와 우메 겐지로』, 일조각, 75쪽 ; 156쪽.

이어서 1908년 7월 20일자로 탁지부 서기관에 임명되었고, 9월에는 이재국 감독과장에 보임되었다. 이 보직에서 그는 주로 한성은행과 한성공동창고주식회사의 업무감독을 맡았다. 1년 뒤인 1909년 11월에는 이재국 국고과장으로 전임되었고 이후 한일병합까지 재임하였다.

안국선의 출사는 이전까지 일본의 침략행위를 비판하고 정부의 무능함을 성토했던 그의 행적들을 고려했을 때 상당히 급작스러운 변화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앞서 확인했듯이 안국선은 계몽운동에 참여하면서도 여전히 정치에 대한 깊은 관심과 열망을 가지고 있었다. 또 그가 주장하던 실업 부흥을 위해서도 정부의 협조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 그런 점에서 안국선의 출사는 사실 자연스러운, 어떤 점에서는 필연적인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 주저하지 않고 관직에 진출한 것에서도 드러나듯이 적어도 안국선 본인에게는 그것이 특별한 모순이나 변절로 여겨지지는 않았던 것 같다.

다만 안국선이 출사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있었다. 그것은 통감부의 간섭 속에서 대한제국 정부가 스스로 개혁을 추진할 만한 충분한 역량을 가지지 못한 상태, 곧 '보호국가'라는 시대적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더욱이 그에게 출사의 길이 열렸던 시기는 헤이그 사건으로 고종이 퇴위하고 정미조약이 체결되어 그나마 있던 대한제국의 국가로서의 기능이 완전히 해체된 때였다. 이에 대한 논리적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의 관직 진출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국권회복의 구상과 관련하여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 없는 행동이 될 것이었다.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정말로 변절을 의미하게 될 것이었다.

사실 안국선이 보호국기에 출사의 길을 택할 수 있었던 논리적 근거는 계몽운동 초기부터 이미 마련되어 있었다. 그것은 보호국 상태에 대한

그의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안국선은 보호국과 피보호국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해하였다.

국제 공법의 원칙으로 보호국과 피보호국의 관계를 연구하니, 보호국과 피보호국이 조약으로 관계를 정한 뒤에 피보호국이 만약 그 조건의 의무를 실행하지 않으면 보호국이 억지로 이를 강행하는 권리가 있거니와, 보호국이 이 권리를 남용하여 조약 외의 부당한 간섭이 있으면 피보호국은 이것을 거절할 권리도 있으며, 그 사건으로 인연하여 조약의 파기를 청구함도 무방한 것이다.⁴²⁾

보호국과 피보호국의 관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조약에 의거한 엄연한 계약관계라는 것이었다. 보호국은 피보호국에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조약으로 규정한 것만 가능하며 그 외에 부당한 간섭에 대해서는 피보호국은 마땅히 거부할 권리가 있고, 심할 경우 조약의 파기도 가능하다는 인식이었다. 보호국-피보호국의 관계를 이처럼 인식할 때 대한제국 정부는 원칙적으로 내치에 있어서 자율성을 보장받아야 했다. 을사조약은 표면상 외교권의 양도 내용만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을사조약의 전문에는 ‘한국의 富強之實을 認할 時에 至하기까지 이 조약을 約定한다’는 문구가 전제되어 있었다. 일본으로서는 대한제국의 저항을 무마하고자 기만적으로 이 문구를 넣었던 것이지만, 일단 법적으로 일본이 조선의 내정에 간섭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것이었다.

물론 그것은 형식적인 것이었다. 을사조약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통감으로 부임한 이토 히로부미는 고종이 의례적으로 부탁한 ‘한국의 유신을 위한 시정개선의 자문’을 빌미로 자신이 한국의 내정에도

42) 天江生(안국선), 「일본의 행위에 대한 국제법 해석」, 『대한매일신보』 1906년 11월 1일자, 제3면.

간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였다. 이후 이토는 1906년 3월 13일부터 통감관사에서 한국정부의 참정대신 이하 각부 대신이 참여하는 이른바 ‘한국시정개선에 관한 협의회’를 수시로 열어 이를 주재하면서 사실상 한국의 내정을 총지휘하였다. 이 협의회는 1909년 말까지 총 97회나 개최되었다. 법적 근거가 없다는 약점 또한 헤이그 사건의 기회를 이용하여 체결한 정미조약에서 제1조로 ‘한국 정부는 시정개선에 관하여 통감의 지도를 받을 것’을 규정함으로써 보완되었다.⁴³⁾

안국선 또한 그러한 현실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지금 정부 내각은 ‘間於齊楚, 곧 약자가 강자 사이에 끼어 괴로움을 당하는 매우 곤란한 처지에 놓여 있다고 보았다. 한편으로는 어떤 곳(통감부)의 충고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여론이 있어 저들을 따르지 않으면 유형의 해로움이 이르겠고, 반대로 이들을 돌아보지 않으면 무형의 모욕을 당할 것이니 정말로 왼편과 오른편 둘 다 어려운 경우에 있다는 것이었다.⁴⁴⁾ 하지만 그러면서도 안국선은 동시에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비판하였다.

그런데 지금 내각은 ‘무형의 모욕은 조금 들을지언정 유형의 해로움을 피해야 하겠다.’라 하고, ‘이들을 돌아보지 않더라도 저들은 따르지 않을 수 없다고 해야겠다’라 하여 그 생각과 해야함에 어긋나고 반대되는 정책을 베푸는 것이올시다. 아! 여러분이여! 여러분이 본인과 함께 지금 정부의 이러한 정책을 반대하는 것은 떳떳한 일이거니와 이러한 정책을 베푸는 지금 내각 여러 대신의 양심도 이러한 정책은 반대하는 것이올시다.

아! 내각 대신이여! 자기 생각과 해야함에 어긋나는 정책을 베푸는 지금 내각이여! 이러한 정책을 베풀어 나라의 독립이 단단하고 굳게 될 수 없는 것을 변연히 알면서, 이러한 정책을 베풀어 국민의 행복이 더하여 나아가게 될 수

43) 박찬승(1992), 앞의 책, 45쪽.

44) 안국선(1907), 「정부의 정책을 공격하는 연설」, 『연설법방』, 150쪽.

없는 것을 변연히 알면서, 이러한 정책을 베풀어 사회의 문명이 발달 될 수 없는 줄을 변연히 알면서, 어쩔 수 없어 이것을 베풀어 행하니, 지금 내각이 정책상에 무능력함을 스스로 보인 것이요, 또 믿고 일을 맡길 수 없음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올시다.⁴⁵⁾

어려운 처지인 것은 알겠지만, 그렇다고 통감부의 눈치만 보고 독립과 국민의 행복, 사회 문명의 발달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을 행함은 무능력한 것으로 현 내각정부는 비판받아 마땅하다는 주장이었다. 곧 그는 일본의 간섭이 현존하는 피보호국 상태에서도 독립과 실력양성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직 있다고 보고 있었다.

피보호국 정부지만 아직 할 수 있는 역할과 책임이 있다고 할 때 그것을 제대로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요구된다. 점점 강해지는 일본의 내정간섭에 대항하여 대한제국 정부의 자율적인 영역을 확보할 수 있는 논리와 국권회복에 유의미한 정책을 구상하고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을 만한 역량이 바로 그것이다. 이는 비록 하급관료지만 출사의 길을 선택한 안국선이 갖추어야 할 것이기도 하였다.

전자와 관련하여 안국선은 먼저 ‘정치’의 개념을 다시금 조정하였다. 이 시기 안국선은 자신이 회원으로 있는 대한협회의 회보에 「정부의 성질」이라는 제목 하에 몇 달에 걸쳐 연속적으로 글을 투고하였다. 그 글에서 안국선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오늘날에는 정부가 그 백성을 억지로 누르는 일이 거의 없고, 정부기관의 움직임은 매우 조용해 권력을 쓰지 않고 자연히 움직임과 같으니 이것은 우리 인류의 행복이요, 특히 문명국 정부에 그것이 그러함을 보겠구나. 이러한 정부는 강한 힘을 사용함이 털끝만큼도 없고 여러 가지 정치를 행할 수 있는 것이다.

45) 안국선, 위의 글, 150쪽.

그러나 이들 정부의 뒤편에도 강한 힘이 반드시 존재하니 밖에 나타나지 않는 까닭에 강한 힘이 없는 것이라 말함은 잘못 이해하는 것이다. 대체로 보아서 근대에 가장 좋은 정부는 다스리는 자의 군대 힘에 의지하여 힘입지 않고, 오로지 다스림을 받는 자의 자유 동의로 근거를 만들어 정부기관의 움직이게 할 즈음에 결코 강한 힘을 밖에 나타내지 않는 것이니 곧, 이러한 정부는 국민 많은 수의 의사로 근원된 헌법 및 법률로 기초를 만들어 그 뒤편에 있는 강한 힘은 한낱 조정이나 혹은 적은 수의 지체가 좋은 겨레의 강한 힘이 아니라, 일치한 국민 많은 수의 강한 힘ियो, 이러한 국민 많은 수의 강한 힘은 굳게고 강하며, 매우 큰 강한 힘이 밖에 나타나지 않음은 그 힘이 넓고 크며 변함없는 까닭이다.⁴⁶⁾

그러하니 정부는 곧 어떠한 것인가? 사회는 한 개의 유기체요, 정부는 그 기관이니 정부는 사회의 행정기관에 지나지 않고, 사회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 습관이나 또는 의사를 행하며, 이것으로 말미암아 주위의 사정에 서로 합하여 다시 이로움이 있는 생존을 갖는 것이다.⁴⁷⁾

오늘날 문명국 정부에서는 힘으로 인민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인민의 자유 동의를 근거로 해서 권력을 사용한다. 정부는 사회의 의사를 행하는 행정기관에 지나지 않으며 그러므로 국민 다수의 의사가 반영된 헌법 및 법률에 기초해야만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이는 입헌정치, 여론정치를 주장한 것으로 이전까지의 국가 중심적인 정치 인식과는 상반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안국선이 이전까지의 정치 인식을 뒤집고 입헌정치, 여론정치를 주장한 것은 물론 통감부를 겨냥한 것이었다. 선진 문명국임을 내세우며 시정개선이라는 미명 하에 조선의 내정을 간섭하고 있는 통감부를 상대로 문명국 정부의 방식인 입헌정치, 여론정치를 실시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이는 다음의 글을 통해서 보다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46) 안국선(1908), 「정부의 성질」, 『대한협회회보』 7, 27-28쪽.

47) 안국선(1909), 「정부의 성질(속)」, 『대한협회회보』 12, 22쪽.

대체로 보아서 백성이 정치상에 대하여 사상을 아주 짧으면 그만이거나와 설사 다른 나라 보호정치 아래에 설치라도 그 정치가 우리에게 癡癡처럼 상관이 있는 이상 우리가 여기에 대하여 말참견 할 권리가 있으며, 관계할 주의가 있는 것이니 어찌 앞질러 봄이 옳겠는가? 그러므로 동일한 주의를 가진 자가 함께 합하여 여러 사람의 힘으로 그 목적을 이루어함이 이것이 정당이다. 그러하니 곧, 정치상의 주의를 드러내 말하고, 정치상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조직한 정당은 질서를 어지럽게 하기 전에는 통감부의 권력으로도 방해하지 못하며, 정부의 압제로도 해산하지 못하는 것이니, 만일 이것을 방해하거나 이것을 해산하면 이는 백성의 자유를 무시하며, 나라의 흥망을 위반함이니 곧, 이와 같은 자유의 원수요, 민중의 마음의 적이다. 어찌 입 다물고 말 안함을 즐겨 하겠는가?⁴⁸⁾

설령 보호정치 아래에서라도 인민은 정치에 대해 관계할 권리가 있으며 그것은 통감부라도 기본적으로 방해할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앞서 통감부의 눈치를 보며 인민들의 바람을 무시하고 무의미한 정책을 일삼던 정부 내각을 비판했던 안국선은 그들과는 반대로 인민들의 정치참여 권리와 여론을 근거로 함으로써 통감부의 간섭으로부터 부분적이거나 대한제국 정부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논리를 마련해 내었던 것이다.

이때 앞선 인용문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다. 그것은 안국선이 인민의 의사를 대변하여 정치적 목적을 이룰 주체로 정당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안국선이 정치 주체로서 정당을 제시한 것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하나는 출사의 길을 택한 안국선이 해결해야 할 두 번째 과제와 관련된 것이다. 피보호국 정부는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는 만큼 높은 역량을 갖추어야 하는데 정당정치는 그러한 상황에 적합한 정치형태라는 것이었다. 정당정치는 시기에 따른 형세 변화에

48) 안국선(1908), 「정당론」, 『대한협회회보』 3, 25-26쪽.

맞추어 그때그때 알맞은 정치 운영이 가능하며, 우수한 인물들 위주로 정부를 조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로온 효과가 많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었다.⁴⁹⁾

안국선이 정당정치를 주장한 또 하나의 이유는 인민에 대한 불신감 때문이었다. 안국선은 대한제국 정부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입헌정치, 여론정치를 제시하면서도 인민이 직접 실질적인 권력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였다. 이와 관련해서 다소 길지만 민주주의에 대한 안국선의 다음과 같은 평이 참고된다.

민주주의의 기초되는 평등의 관념은 적당히 이해하지 않으면 옳지 않으니 어찌서인가? 평등에는 '절대적 평등'과 '관계적 평등'의 두 가지가 있으니 곧, 앞의 것은 국민이 각 공공사업을 처리함에 동일한 기회를 소유할 것이요, 뒤의 것은 국민이 정부에 서는 자리가 각 국민의 가치와 비례할 것이다. 가령 추첨법으로 가려 뽑음은 관계적 평등에 접근한 방법이다. 정치가에 대한 플라톤 씨의 관념은 삼천 년에 가까운 지나간 옛날에 속함이나, 정치사상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그의 오른편에 나올 자가 있지 않다. '정치가는 지혜가 깊고 사리에 밝은 사람과 일치함이니 정치가의 임무는 덕행의 이상적 표준에 적합한 국민을 길러냄에 있다'라 하였으며, '이상적으로는 정치가의 자유행동이 선량하고 완전한 정치의 보증이니, 법규에게 가슴이 막혀 답답하게 금지되고 단속될 것이 아니지만, 불완전한 인류 사이에 성립한 불완전한 조직에는 법률이 아니면 용납할 수 없음에 준거할 것'이라 하였으며, '정치는 그 주의를 잡고, 그 목적을 이루려 할 때에 제정의 권력을 두둔함도 옳지 않고, 민주의 자유를 거러낌 없이 제멋대로 행동함에 흐르게 함도 옳지 않다.'라 하였으며, '평등의 관념을 적당히 해석하여 국민은 그 국민의 가치와 비례하여 모두 정치가의 자리에 거할 권리가 있음'이라 하였으니, 정치가는 이와 같이 해석함이 당연하고 무단정치의 수단을 쓰며 권모술수의 방도를 높임은 정치가에 대한 오해라 하겠다.⁵⁰⁾

49) 안국선(1908), 위의 글, 26쪽.

50) 안국선(1908), 「정치가」, 『대한협회회보』 5, 24쪽.

그는 플라톤의 말을 인용하면서 정치에 참여할 권리는 그 인민의 가치에 비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정치가는 그 주의를 잡고, 그 목적을 이루려 할 때에 제정의 권력을 두둔함도 옳지 않고, 민주의 자유를 거리낌 없이 제멋대로 행동함에 흐르게 함도 옳지 않다.’는 말은 통감부의 내정간섭 만큼이나 조직되지 않은 인민들의 직접적인 정치참여에 대한 그의 우려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국민은 모두 정치가가 될 권리가 있지만 정치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도록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가치’ 있는 자들이었다. 그리고 그 역할은 충분히 정치학을 연구해 온 자신과 같은 지식인들의 몫이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⁵¹⁾ ‘정치’에 대한 인식을 극적으로 전환하여 입헌정치, 여론정치를 주장하는 가운데서도 인민은 제도해야한다는 생각과 스스로를 그것을 담당할 정치가로서 자부하는 의식은 지속되고 있었던 것이다. 안국선의 적극적인 정치참여는 이러한 의식이 바탕이 되어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처럼 그는 입헌정치와 여론정치를 강조하였고 그럼으로써 대한제국 정부의 자율성을 최소한이나마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동시에 정당정치론을 통해 그의 관직진출을 합리화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그러한 그의 시도는 명확한 한계가 있는 것이었다. 무엇보다도 그는 일본의 침략행위를 근본적으로 거부, 비판하지 않았다.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의식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일본에 대한 그의 비판은 제국주의의 본질에 대한 비판보다는 조약 위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실질적인 정치권력을 필요로 하는 그의 구상에서는 현실적으로 조선 정부를 장악하고 있는 통감부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어려운

51) 안국선(1908), 「정치학 연구의 필요」, 『畿湖興學會月報』 2, 28-29쪽.

일이었다. 인민의 역량에 대한 불신 또한 그의 선택을 더욱 제약하는 요인 중 하나였다. 한일 병합에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한 것도, 병합 이후 총독부에 의해 해임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관직에 머물렀던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다. 병합 이후 정치권력에서 완전히 배제된 안국선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다시 차선택이었던 사회·경제운동으로 돌아가는 것 뿐이었다.

V. 맺음말

지금까지 유학 시절부터 한일병합 전까지 안국선의 사상이 변화하는 과정을 그의 '정치'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안국선은 한말 대표적인 계몽운동가로 주로 알려져 있지만, 앞서 보았듯이 사상 형성 초기 때부터 그의 주된 관심사는 국가와 정치에 관한 것이었다. 그는 정치가가 되고자하는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시대적 상황과 개인적 고난 속에서 그의 구상은 그대로 관철되기 어려운 것이었다. 안국선이 다시금 활동에 나설 무렵의 대한제국 정부는 러일전쟁 이후 한국의 저항을 무력화시키기 위하여 취해진 일본의 강압적 조치들로 인하여 이미 개혁을 추진할 만한 충분한 행정력을 가지지 못한 상태였고, 더욱이 그는 역적으로 죽은 안경수의 인척이었다.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여 그는 유학 시절의 구상을 일정부분 수정하여 정치의 영역을 확장하고 인민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지식인으로서 계몽운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논리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본질적인 사상 변화를 수반한 행동은 아니었다. 그는 여전히 정치를

우선적인 과제라고 보았고, 계몽 활동은 어디까지나 차선책으로 생각하였다. 인민을 계몽하고 실업을 진작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어서도 국가 중심의 사고방식은 부분적이거나 여전히 잠재해 있었다. 그의 계몽 활동은 불안정한 사상적 기반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렇기에 안국선에게 출사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는 주저 없이 관직에 진출하는 것을 선택하였다. 그러한 행동의 이면에는 부분적이지만 분명한 사상 변화가 내재되어 있었다. 이전과는 다르게 그는 입헌정치와 여론정치를 강조하였고 그럼으로써 대한제국 정부의 자율성을 최소한이나마 확보하고자 하였다. 또 그를 통해 그의 관직 진출에 대한 나름의 정당성도 마련하고자 하였다. 환경에 변화에 따라 행동을 바꾸어나가는 과정에서도 적극적인 활동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안국선이 그 나름의 명분과 합리성을 계속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가 마련한 명분과 합리성이란 그 한계가 명확한 것이었다. 무엇보다도 그는 일본의 침략행위를 부정적으로 보면서도 그것을 근본적으로 거부, 비판하지 않았다.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의식이 완전히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일본에 대한 그의 비판은 그보다는 조약 위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실질적인 정치권력을 필요로 하는 그의 구상에서는 현실적으로 대한제국 정부를 장악하고 있는 통감부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인민의 역량에 대한 불신 또한 그의 선택을 더욱 제약하는 요인 중 하나였다. 그러한 한계 속에서 결국 그가 선택한 것은 친일내각·식민권력의 하급관료, 곧 친일의 길이었다. 그는 1915년 자신이 쓴 소설 『공진회』에서 다음과 같이 간접적으로 총독부의 식민통치를 찬양하였다.

공진회를 개최한다는 소문이 있더니, 서울서 공진회 협찬회가 조직이 되었는데, 공진회는 총독정치를 시행한 지 다섯 해 된 기념으로 하는 것이라 하는 말을 김서방의 내외가 들었던지, 경찰서에서 돈을 내우준 것을 항상 고마워하고 **총독정치의 공명함을 평생 감사하게 여기던 터이라**, 공진회 협찬회에 대하여 돈 이백 원을 무명씨로 기부한 사람이 있는데, 이 무명씨가 아마 김서방인 듯하다더라.⁵²⁾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일관료의 길마저도 오래 지속되지는 못하였다. 병합 이후 일제는 조선을 군사기지로 개발하고자 하면서 그에 따라 늘어난 비용을 행정비 절감을 통해 보충하고자 하였는데, 그 일환으로 관제개혁이 추진되어 안국선을 위시한 조선인 하급관료들이 대거 축출되게 되었던 것이다.⁵³⁾ 병합 이후 정치권력에서 완전히 배제된 안국선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다시 차선택이었던 사회·경제운동으로 돌아가는 것 뿐이었다. 1920년대 문화통치라는 이름 하에 비정치적인 영역에서나마 조선인들의 활동 공간이 다시 형성되었을 때 그가 민족본위의 경제정책을 주장했던 것은 과거 계몽운동으로의 참여와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행동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형식뿐이나마 존재했던 대한제국 정부가 사라진 이상 그것은 더욱 개량주의적인 성격을 띠지 않을 수 없었다. 이는 곧 친일자치 운동단체인 유민회(維民會)로의 참여와 활동으로 이어졌다. 사회와 인민의 역량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안국선으로서는 국가권력이 일본에 완전히 장악당한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만한 논리를 만들어 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안국선의 사상적 한계이자 친일화의 배경은 바로 여기에 있었다고 하겠다.

52) 안국선(1915), 『공진회』, 83쪽.

53) 森山茂徳(1991), 「日本の朝鮮統治政策(1910-1945)の政治史的研究」, 『法政理論』 23-3・4, 77쪽.

참고문헌

[자료]

『舊韓國官報』 『畿湖興學會月報』 『大朝鮮獨立協會會報』, 『大韓協會會報』 『夜雷』 『親睦會會報』, 『學之光』, 『皇城新聞』.

安國善(1907), 『政治原論』.

安國善(1907), 『演說法方』.

安國善(1915), 『共進會』.

[저서]

김도형(1994), 『대한제국기의 정치사상연구』, 지식산업사.

김영모(2002), 『조선지배층연구』, 高憲出版部.

김효전(2000), 『근대한국의 국가사상』, 철학과 현실사.

박찬승(1992), 『한국근대정치사상사연구』, 역사비평사.

서영희(2003), 『대한제국 정치사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이영미 지음 · 김혜정 옮김(2011), 『한국사법제도와 우메 겐지로』, 일조각.

[논문]

김효전(2010), 「안국선의 와세다 시대」,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47.

노상균(2015), 「한말 ‘자유주의’의 수용과 분화: 일본유학생을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97.

서재길(2017), 「경찰 기록으로 본 『금수회의록』 텍스트의 생산 과정」, 민족문화사학회, 『민족문화사연구』 65.

- 송병기(1988), 「開化期 日本留學生 派遣과 實態」, 단국대학교 동양학 연구원, 『東洋學』 18.
- 유동훈(2000), 「韓末 渡日留學生의 文明開化論과 法思想 研究」, 연세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 이태훈(2013), 「한말 일본유학생들의 자기인식과 계몽논리」, 한국사상사학회, 『한국사상사학』 45.
- 이태훈(2013), 「한말 일본 유학 지식인의 '근대 사회과학' 수용과정과 특징」, 이화사학연구소, 『梨花史學研究』 44.
- 최기영(1991), 「안국선의 생애와 계몽사상 (上)」, 일지사, 『한국학보』 17-2.
- 최기영(1991), 「안국선의 생애와 계몽사상 (下)」, 일지사, 『한국학보』 17-3.
- 森山茂徳(1991), 「日本の朝鮮統治政策(1910-1945)の政治史的研究」, 『法政理論』 23-3 · 4.

Shifts in Ahn Kook-sun's Perception of 'Politics' and the Logic of Pro-Japanese Collaboration

Sang Gune Noh*

Abstract

This article examines the transformation of Ahn Kook-sun's thought from his years of study abroad to the eve of the Japan - Korea Annexation, focusing on his perception of "politics." From the early stages of his intellectual formation, his central concern lay with the state and politics, and he maintained a strong aspiration to become a political actor. However, due to the constraints of the historical context and his personal circumstances, this ambition proved difficult to realize. In response, he partially revised his earlier ideas by expanding the scope of "politics" and emphasizing the role of the people, thereby constructing a rationale that enabled him to participate actively in enlightenment movements. Yet this adjustment did not constitute a fundamental transformation of his thought: he continued to regard politics as the primary task, while viewing enlightenment activities as a secondary alternative.

When the opportunity to enter officialdom arose, he accepted it without hesitation. This decision reflected a partial shift in his thinking, as he came to emphasize constitutional politics and public opinion in an effort to secure a limited degree of autonomy for the Korean Empire. At the same time, he sought to justify his entry into government service. However, the limitations of this justification were evident. Although he perceived Japanese encroachment negatively, he did not fundamentally reject or resist it. Ultimately, constrained by his political aspirations and the realities of power, he chose the path of a subordinate official within the colonial regime—that is, pro-Japanese collaboration.

Keyword: Ahn Kook-sun(安國善), Korean Students in Japan in the Late Daehan Empire Period, Politics, politician, the theory of party politics

* Senior Researcher,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E-mail: dlflcjs@naver.com)